

## (2017. 6. 24 시행) 서울시 9급 기출문제 [국 어(A 책형) 해설]

[안 한 섭 선생님]

제일고시학원(중앙로점/충남대점) www.okpass.com

###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정답 ②

해설: 학여울은 ㄴ첨가를 해서 [항녀울]로 발음하고 로마자 표기도 'Hangnyeoul'로 적는다.

오답 해설:

- ① 선릉[선릉] - Seolleung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엔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정답 ③

해설: 사시시옷은 뒤에 거센소리가 오면 쓰지 않으므로 '뒤풀이'는 맞는 표기이다. '맥줏집'은 한자어인 '맥주(麥酒)'와 순우리말인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며, 뒷말이 '집[쩍]'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므로 '맥줏집'과 같이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오답 해설:

-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엔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기본형이 '붓다'이므로 '붓는'으로 써야 한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올림 소리 뒤이므로 '넉넉지'로 적어야 한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 자격을 나타내므로 '로서'로 적어야 한다.

###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③ '·'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뵤'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뵈'으로 변화하였다.

정답 ①

해설: 띄어쓰기도 맞춤법에 포함되므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오답 해설: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근대 국어 이후에 등장했다.

③ ‘ㆍ’은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④ ‘병’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ㅼ’으로 변하였다. → ‘오/우’로 변하였다.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신라의 진평왕 때 눌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늣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 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이다.”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결의를 밝혔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두괄식 문단으로 하라고 했으므로 첫 문장이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주제는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하므로 ㉢이 주제이다. 따라서 3번이 답이다. ㉠과 ㉡의 신라 진평왕 때 눌최의 발언, ㉣의 죽죽의 발언은 나열된 사례이므로 주제가 될 수 없다.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정답 ③

해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이다. 화자는 별을 보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떠올린다. 이것들은 그리움의 대상들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 고백하는 말투이므로 청자가 나와 있지 않다.
-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을 비판한 내용은 없다.
-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 별은 긍정적인 의미이다.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답 ①

해설: 살다와 죽다는 중간항이 없는 모순 관계이다. 나머지는 중간항이 존재하는 반대 관계이다.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보기>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정답 ①

해설: <보기>의 단어는 모두 파생어이다. ‘건(乾)’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마른’ 또는 ‘말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나머지는 합성어이다.

오답 해설:

② ‘곡’은 명사로도 있고 접미사로도 있다. ‘금지곡(禁止曲)’은 명사 ‘금지’와 명사 ‘곡’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참고) 어떤 종류의 노래나 악곡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곡(曲)’이 쓰이는 파생어에는 ‘교향곡, 합주곡, 합창곡’ 등이 있다.

③ ‘한자음(漢字音)’은 명사 ‘한자’와 명사 ‘음’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④ ‘핵폭발(核爆發)’은 명사 ‘핵’과 명사 ‘폭발’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② 늦거사            ③ 바올            ④ 가빅야븐

정답 ④

해설: ‘가빅야븐’에서 ‘빙’은 연서법에 해당하는 글자이므로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정답 ①

해설: 예를 든 문장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오답 해설: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 논리적 오류 없음.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러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 밀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얹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얹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얹전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쯤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같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구요.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답 ④

해설: 소설 ‘치숙’의 일부이다. 서술자인 ‘나’는 ‘내지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든지’ ‘조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고, 아이들도 일본인 학교만 보내’겠다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보게 한다.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보기〉

-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② 분주합                      ③ 성급합                      ④ 뒷고생

정답 ①

해설: 가물에 도랑을 쳐봐야 쓸모가 없고, 까마귀가 미역을 감아봐야 역시 하얗게 되지 않으므로 모두 헛수고이다.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陶冶- 도치                      ② 改悛- 개전                      ③ 殺到- 살도                      ④ 汨沒- 일몰

정답 ②

오답 해설: ① 陶冶- 도야 ③ 殺到- 쇄도 ④ 汨沒- 골몰

13.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보기〉

㉠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걸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쪽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일 밖에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③

해설: 해를 세는 의존 명사인 ‘년’은 단위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다만,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이므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30년’으로 적는 것은 맞는 표기이다. 또한, ‘동안’은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창문의 밖’을 의미하는 ‘창밖’은 ‘창’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이므로 ㉠은 ‘창밖’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 ② ‘우단’은 ‘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을 뜻하는 ‘벨벳’과 같은 말이다. ‘우단’은 사전 등재되어 있으나 ‘우단천’이라는 말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은 우단과 천을 띄어서 ‘우단 천’으로 띄어 써야 한다.
- ④ ‘밖에’는 ‘바깥에’의 뜻일 경우에는 ‘집 밖에 나가 있어라’처럼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그러나 뒤에 부정적인 말이 와서 ‘그것 이외에는’의 뜻일 경우에는 조사 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따라서 ㉢은 ‘일밖에’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14. 다음 <보기>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보기>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정답 ③

해설: ㉔의 주어만 ‘우리’이다. 나머지는 ‘환자’가 주어이다.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정답 ②

해설: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70년대

㉔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20년대

㉔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50년대

㉔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30년대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닐대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② 굵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④ 끝끝내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정답 ②

해설: 굵적대다는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이다.’의 뜻이다.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는 ‘굵실대다’이다.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① 토의 - 討義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舉

정답 ②

오답 해설: 토의(討議), 선택(選擇), 준거(準據)로 써야 한다.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⑦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㉔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㉔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④ 축약 - 두 요소가 합쳐져 다른 요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㉓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              |                |
|--------------|----------------|
| ① 국+만 → [궁만] | ② 물+난리 → [물랄리] |
| ③ 입+고 → [입꼬] | ④ 한+여름 → [한너름] |

정답 ④

해설: 한여름이 [한너름]으로 발음이 되는 것은 첨가(ㄴ첨가)현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대치(교체)이다.

오답 해설:

- ① 국+만 → [궁만] : 비음화(교체)
- ② 물+난리 → [물랄리] : 유음화(교체)
- ③ 입+고 → [입꼬] : 된소리되기(교체)

###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②

해설: 첫 문장에서 인간사는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자연사는 반복을 반복할 뿐이라 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부터는 ‘그런데’로 시작하며 첫 문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진술한다. 마르크스가 인간사와 자연사의 유사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에는 인간사와 자연사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다음의 문장 역시 마르크스가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합일을 지향했다고 언급하며 ㉠을 뒷받침한다.

###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찢찢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

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보기>의 글은 법정 스님의 ‘거꾸로 보기’이다. 어느 부분에서 깨달음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라고 했으므로 평소와 다른 자세로 보니 산이 달리 보인 것이다. 더 나아가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 보았다.”라고 했으므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으므로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가 적당하다.